

完州 威鳳寺 普光明殿

申 榮 勳

完州郡公報室에서 完州 威鳳寺 조사를 의뢰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겨우 현지를 갈 수 있었다. 열성적인 完州郡守의 同行으로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 一九七六년의 여름이었다. 이어서 一九七六년 가을에 또 一九七七年 四月二七일에 普光殿의 조사를 하게 되었고 국가에서 寶物로 指定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첫 조사와 지정 조사를 담당하였던 책임으로 보아 이 건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할 듯하여 약간의 고찰을 하고저 시도하였다.

威鳳寺는 威鳳山城內에 있다. 邑誌에 의하면 威鳳山城은 「在府東四十里」에 있는 것으로 되었다. 「大東地志」에 의하면 山城은 珠華山の 서쪽에 있는데 肅宗元年(一六七五年)에 쌓고 규모는 둘레가 五、〇九七把、砲樓 一一、城門 四、暗門 八、井 四五、池 九이었고 城內에는 行宮 一寺刹 一四、鹽山 一、倉庫 八棟이고 城中에는 兜率峰이 있는데 거기에 큰 폭포가 있다고 하였다.

『完山誌』에는 「威鳳山城圖形」이 한 폭 있고 「威鳳鎮事例」條가 있다. 여기에는 幸宮의 규모와 소속 九邑의 倉庫와 城堞의 守禦와 各門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다.

威鳳鎮事例

幸宮 六間

丁字閣 二間、左翼廊 五間(僧將守直)、右翼廊 五間(義僧守直)、內神門 三間、外神門 三間、鎮將備處軒 六間、鍊武亭 六間

中略

東門 一間、西門 三間、南門 無不爲通來、北門 一間、防築 一二處、

井泉 四一處

여기의 行宮은 다른 山城의 그것과 규모가 다르다. 一棟 六間의 소규모일뿐 아니라 丁字閣이 二間 一棟 구성되어 있다. 이는 行宮에 王이 移御하기 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神物이 移安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同書 關防條의 「行宮」下에 「在山城內即 影幘移安之所」라고 기록하였다. 결국 山城內의 行宮은 太祖의 眞影을 奉安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된 것이고 이 影殿을 수호하기 위하여 威鳳山城이 쌓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太祖의 御影을 보존하기 위하여 全州에 慶基殿이라는 건물을 太宗一〇年(二四一〇)에 짓는다. 壬辰亂에 全州가 위태롭게 되자 太祖의 眞影은 곧 안전한 장소로 移安되나 마땅치 못하여 轉轉①하다가 光海君 때 다시 慶基殿을 重修하고 奉安한다. 만일의 난리가 나서 全州가 위태



威鳳山城圖形

롭게 되면 곧 移安할 안전할 장소로서 威鳳山城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威鳳山城을 肅宗元年에 完成^②시켰으나 保全하기 어려워 역시 赤裳山城 쪽이 더 유리하다느니, 이미 완성되었으니 마땅히 山城을 보존하여야 되겠다느니 하는 논의^③가 있었고 全州와 거리가 있는 다른 郡縣에 보존책임을 전가하려는 다툼도 있었다^④. 결국 규모 큰 성을 쌓고 그것을 守禦하는 經費와 軍人차출로 진통을 겪게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城內의 僧徒들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었던 듯 하다.

城內에 열네곳의 절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열네곳 전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完山誌』에는 威鳳寺 하나만이 登載되어 있다^⑤. 그런 반면에 『威鳳山城圖形』에는 幸宮 옆에 彌陀寺 大雄殿만이 그려져 있을뿐 다른 절의 표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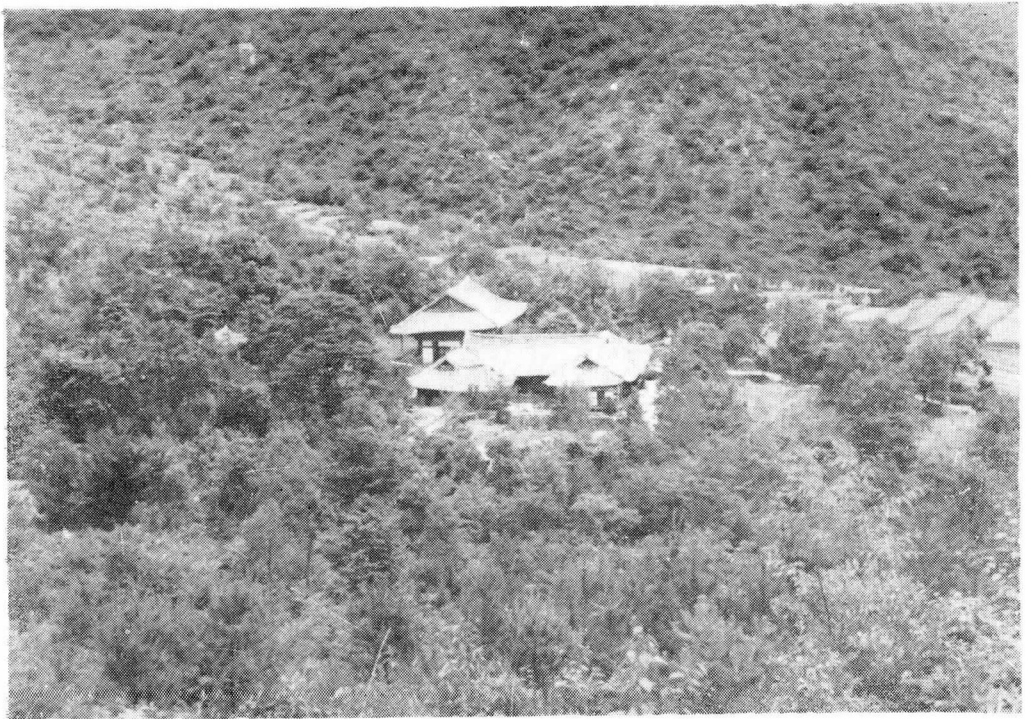
威鳳寺는 전에 三十一本山중의 하나인 巨利이었으나 지금은 격하되어 大衆도 未拾의 소수이고 경내 건물로는 普光明殿과 講堂一棟이 있을뿐 아주 소략하며 住持의 출입이 잦아 事蹟記 등의 文書保管이 全無한 상태이어서 所據할만한 文典이 절에는 단 하나도 없고 懸板조차도 없다. 오직 하나 있다면 『普光明殿』이라고 쓴 懸額에 『道光十八年乙未六月季夏日 改瞻施主 鎮將李昌德重刊 化主比丘莊珣刻 比丘成云』이라는 기록이 있을뿐이다. 이에 의하여 普光明殿의 치마는 道光一八年(一八三八)에 改造되었고 施主는 鎮將인 李昌德이 하였으며 이때 懸額도 다시 改刻하였는데 成云이란 스님이 刻字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文字를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殿內에 奉安되어 있는 幀畫의 緣起文이다. 殿內에는 後佛幀 三幅과 神將幀 등 二幅이 있는데 緣起文을 읽을수 있는 것이 四幅이다.

① 聖上即祚三十三年丙申正月晦日造成點眼于威鳳寺仍以奉安(神將幀)

② 光緒六年庚辰八月 日造成奉安于應真堂

③ 光武元年丁酉十月 日海東朝鮮國全羅右道全州府所良面西峯山威鳳寺法堂後佛幀造成于仍以奉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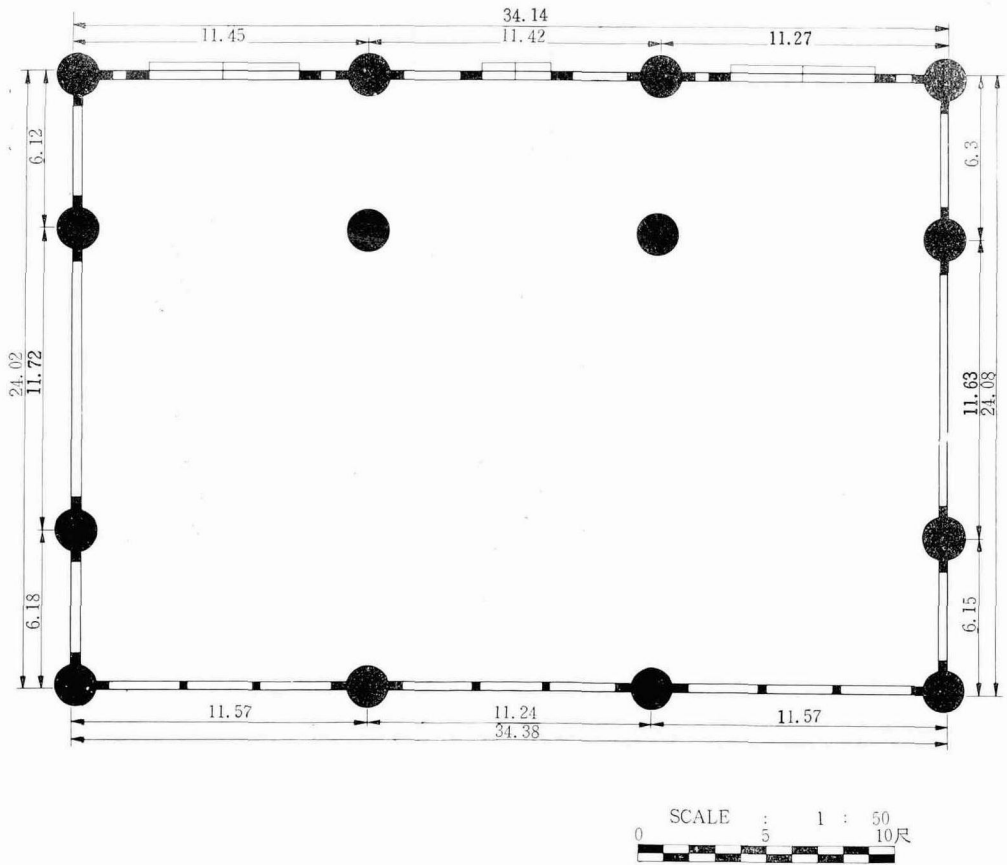
④ 光緒六年庚辰八月 日造成仍以奉安于本寺大法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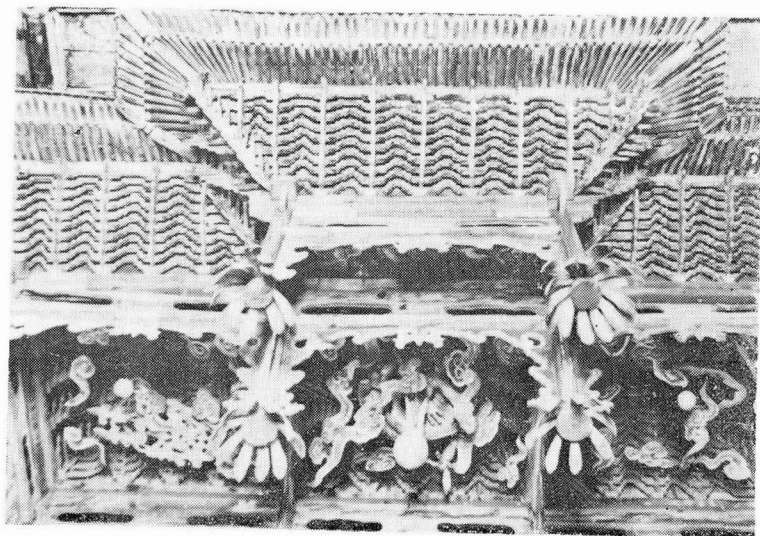
威鳳寺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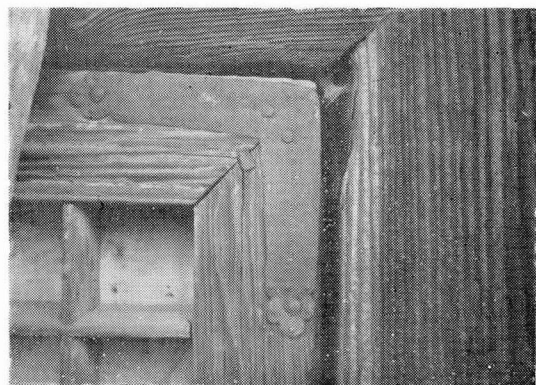
普光明殿동쪽의 建物址, 이중에 應眞堂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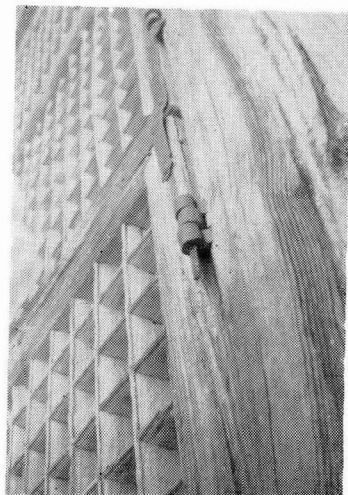
普光明殿平面



普光明殿의 닷집



문짝의 鐵補強



문짝위의 비너못

여기의 聖上即祚三三年丙申은 高宗三三年으로 建陽一年에 해당하는 一八九六年이고 光緒元年是 一八八〇年, 光武元年是 一八九七年으로 모 두가 末之末期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때 이 절에 어떤 重興의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고 三一本山이 될 터전이 이룩되었던듯 하다. 四幅의 緣起文 末尾에 幀畫 奉安處로 應眞堂, 法堂, 大法堂이란 이름이 보인다. 後佛幀이 普光明殿을 위하여 주문 제작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法回이라 썼으므로 法堂은 普光明殿일 것이고 大法堂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머지가 應眞堂인데 지금은 이 건물이 없고 普光明殿 동쪽에 遺地만을 남기도 있다. 수십년 전에

은진당은 헐어졌다고 한다. 普光明殿은 壬座丙向하였고 正面三間 側面三間の 규모로 單層이며 겹처마의 팔작기와 지붕이다. 殿內에는 마루를 깔았으나 이는 後補인듯하며 원래는 敷塲하였던듯 하다. 高柱 뒤쪽 板床 일부를 뜯고 살피니 塲片一點을 볼 수 있었다.

普光明殿의 平面構成은 柱下柱心間의 實測値를 實測圖에서 보듯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正面 木斗길이가 三四, 三八尺, 後面은 三四, 一四尺, 向右側 二四, 〇八尺, 向左側 二四, 〇二尺인데 이를 각각 평균하면 長邊이 三四, 五二尺이고 短邊은 二四, 〇五尺이다. 원래 이들의 使用尺으로 完數로 계산되었다면

長邊 34.52 ÷ 34 = 1.015 (1)

短邊 24.05 ÷ 24 = 1.001 (2)

(1)과 (2)의 평균치 1, 〇〇六尺

으로 當時 使用尺度는 一, 〇〇六尺으로 營造尺 一, 〇二尺과 대동소이 하여 營造尺으로 計量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各柱間은 前後面 三四尺으로 보아 各間 一尺씩, 側面은 御間 一尺 挾間 六尺씩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一尺씩일 때의 三間 三三尺과 現長 三四尺과의 差額 一尺은
 귀기둥의 오름에서 기둥뿌리를 밖으로 ○, 五尺씩 빼낸 데서 생긴 수치
 라고 판단된다.

平柱는 隅柱보다 柱徑이 가늘고 高柱二本은 귀기둥 지름과 같다. 高
 柱二本 사이에는 土壁을 치고 後壁에 白衣觀音菩薩像을 壁龕로 그리고 前
 面에는 幀畫를 걸고 佛壇을 두어 阿彌陀와 左右菩薩을 安置하였으며 前
 장에 후사스러운 榻집을 설치하였다. 榻집 아래로는 雲間의 飛龍이 如
 意珠를 희롱하는 장면을 透刻하여 懸掛하였다.

佛壇은 보편적인 床形이며 前面은 數段區劃하여 童子木 드리고 穹
 끼우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普光明殿은 세벌대 높이의 자연석 쌓은 基壇 위에 자리잡았다. 基壇
 중앙에 큼직한 자연석으로 놓은 石階가 있다.

前面三間은 모두 開放되어 三扉가 달렸다. 문짝은 밑에 穹판이 달린



普光明殿의 西側面御間은 變造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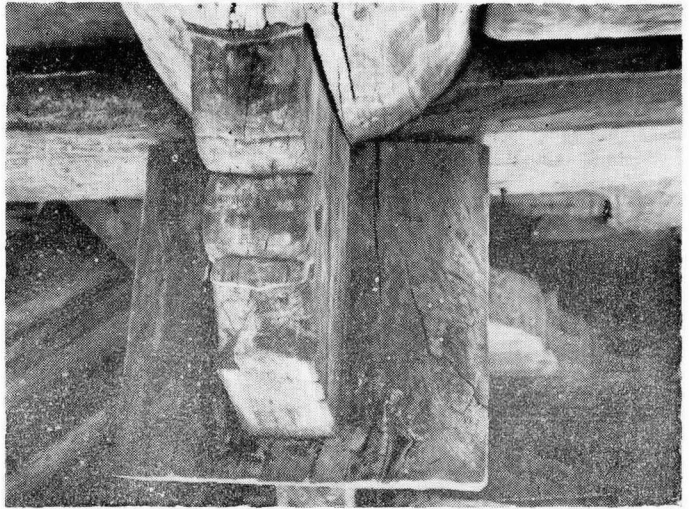
普光明殿의 後面

넢살부더이고 문골이음에는 최장석을 박아 보강하였다. 문골 위로 비너
 못을 박아 左右挾間 세 짝문은 처마 밑으로 떠올리게 하였고 御間에서는
 가운데 문짝이 열려 접히면 함께 떠올려 매달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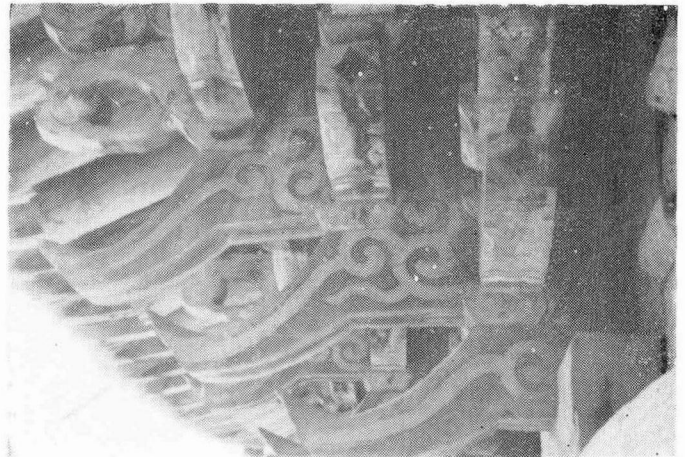
이들 문짝은 建物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오
 는 것으로 짐작된다.

側面은 三間중 御間과 前挾間이 開放되도록 문짝을 달았으나 御間은
 원래 土壁이었던 것이 變造된 것으로 보인다.

側壁構成에서 昌枋 아래 넓은 벽을 두고 문짝의 引枋 높이로 中枋을
 드린 점은 주목된다. 中枋 下枋을 굽적하게 썼다. 기둥 좌우에 벽선 세



창방뿔목은 장려 목과 같도록 깎아 草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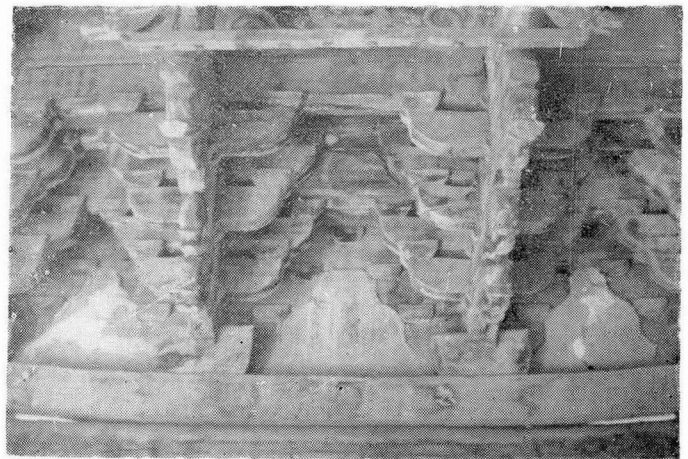
普光明殿의 外三出目 構成

웠는데 下枋과 昌枋에 바로 걸리도록 길게 새웠다.

後面三間도 모두 開放되었다. 御間은 바라지문이 달렸고 좌우간은 光
 窓이 되었는데 빈지의 큼직한 바라지창이 달렸다. 원래의 모습인듯이
 보인다.

기둥은 圓柱이며 礎石은 自然石이다. 圓柱에는 배흘림을 두었고 일부
 는 材木에 따라 민흘림을 하였다. 귀기둥은 솟음을 두었고 우듬도 있다
 격식에 맞추어 治木、施工하였음이 보이며 듬실한 재목을 후하게 써서
 집이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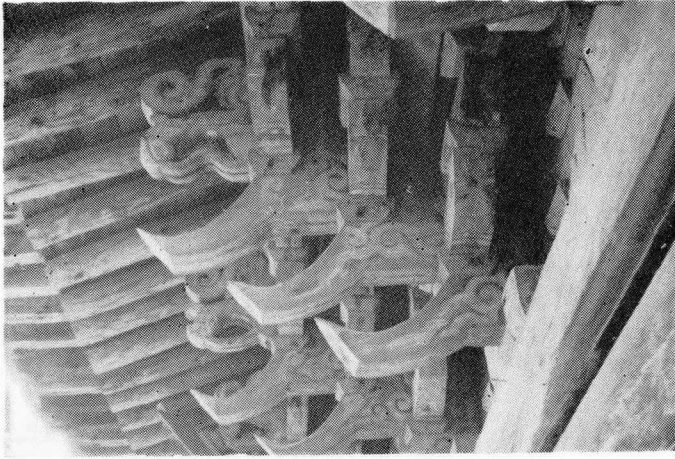
기둥머리에 昌枋을 짜들리고 그 위에 平枋을 얹었는데 창방의 뿔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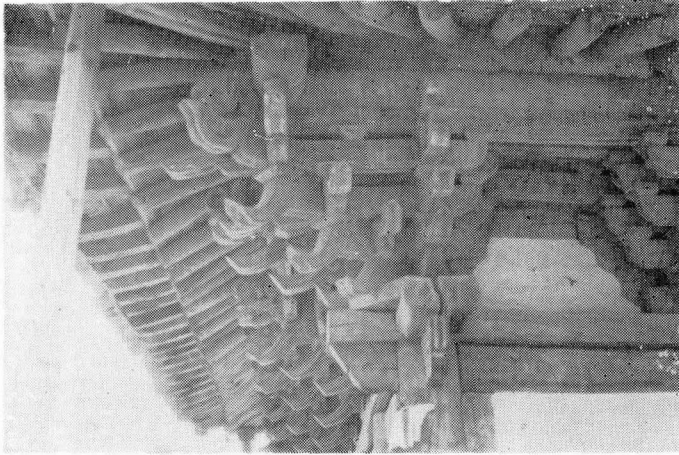
普光明殿의 內三出目 構成

장혀폭과 같도록 다듬고 草刻하였다. 그냥두었으면 무겁고 둔하게 보일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

공포는 内外三出目の 多包이다. 보통 外三出目이면 内四出目인 수가 많은데 이 집에서는 内外同數로 처리하는 기법을 보였다. 포작의 짚음에서 주두에 놓이는 頭工을 쇠서없이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집에서는 쇠서를 두어 二諸工과 더불어 쇠서가 세가닥 중첩하게 되었고 살미는 그 끝을 蓮華刻 하였으며 한대는 雲宮刻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모양에서 우리는 初葉의 中期的인 시대를 읽을 수 있는데 奧地의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肅宗元年의 威鳳山城 축성과 동시에 經營되었던 집



普光明殿의 공포



귀공포의 가침과 출목막음의 오묘한 기법이 잘 구사되어 있다



대공둥의 형태는 아직 알 수 없다. 중대공은童子柱形이며 간략한 보아가 있다.

대공은 등직하나 自然木의 형상을 살려 구
架構는 高柱집의 通常的인 七椽架이며 内外
目道里 사이에 柱心도리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
금으로서 알 수 없다(해체하는 기회가 있으
면 확인할 계획임)
팔작집, 천장있는 집의 일반적인 구성과 마
찬가지로 宗樑以上은 우물천장으로 가렸어서
대공둥의 형태는 아직 알 수 없다. 중대공은
童子柱形이며 간략한 보아가 있다.

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훨씬 上代에 건축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공포의 처리에서 中期以後에 볼 수 있는 번잡한 구성과는 다르 게 간결하게 생략하면서 가침이하의 막음을 매끈하게 처리한 기법이나 솜씨는 놀랍다. 이런 점에서 中期以前的 시대성을 볼 수 있고 노련한 건축가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도리는 굴도리이고 서까래는 자은서까래이며 겹처마이고 귀에는 선자 연을 걸었다. 부연에 새발부연이 없는 점에서 中期以前的 양상을 볼 수 있다. 사례는 날렵하고 추너는 둔중한 맛을 풍기도록 부재의 크기를 조절하였고 荷葉를 바쳐 활주를 세웠는데 당초부더의 시실로 보인다.

태어 매끈하게 다듬지 않았다. 衝枋은 中期以後에서 처럼 龍頭등을만 들지 않고 中臺工에 맞닿았는데 그 폭을 줄이고 형태를 우미량처럼 정리한 것은 初期的인 솜씨를 남긴 것이라 하겠다.

三出目 공포의 내부구조로 중도리와 공포와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 여기를 큰 花盤과 土壁으로 정리하였다. 花盤엔 唐草무늬를 草刻하여 施彩하고 土壁에는 羅漢像등을 그렸다.

천장은 층층으로 층양은 소란반자이고 갖의 것은 板材만을 나란히 놓은 방식이다.

소란반자의 십자형 구성에 蓮華를 그리고 半圓形 瓦製로 花蕊를 박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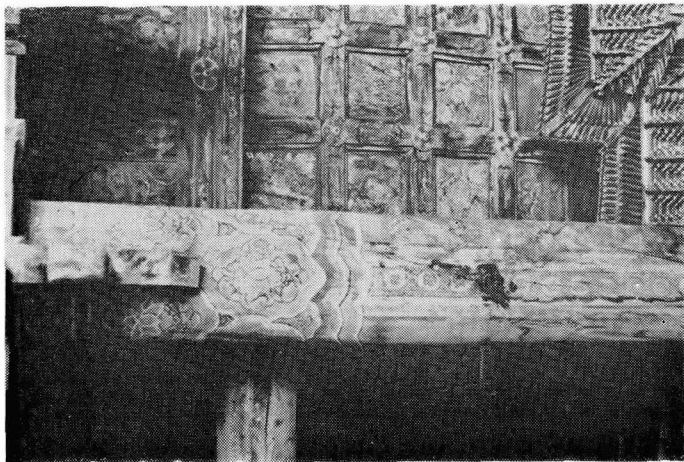
普光明殿의 추녀, 사래와 선자연, 그리고 활주



大樑과 깊은 보아지와 中臺工과 衝樑이 보인다

다. 꽃술이 돌아나 보이도록 하던 新羅以來的의 장엄이라고 할 수 있다. 中期 이후 건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다.

普光明殿의 丹青, 壁畫, 別伎畫들은 그 色調가 차분하고 아늑하며 무늬는 多様な 錦丹青이다. 包壁과 昌材下 眉壁, 後佛壁에는 羅漢像 釋迦 說法圖와 奏樂飛天像·白衣觀音菩薩像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의 奏樂飛天像은 매우 上代的인 形容을 보이고 있다. 華嚴寺 圓通殿의 奏樂飛天像과 대등하며 오히려 그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다행히 後壁에 飛天像壁畫가 남아있어 이번 指定에서 는 木部와 함께 丹青 壁畫도一括하도록 의도하였다. 改彩로 인한 말살



大樑배 바닥과 단청무늬와 우물천장과 보아지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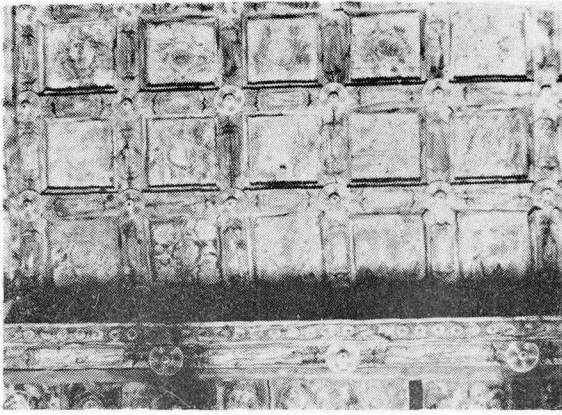
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殿內에는 보기든문 幀畫 四幅이 있다. 원래는 屬庵에 八幅 있었던것 중에서 四幅을 이 절로 옮겨와 법당에 보관하는 것이라 한다. 현재는 講堂의 一室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緣起가 없어 佛畫에 무식한 나로서는 어떤 幀畫인지 알 수 없으나 幀 畫내용을 자세히 보면 建物 各間に 扁額이 있고 「無量壽閣」 「彌陀殿」 「光明殿」 등으로 쓰여있음에서 阿彌陀如來와의 관계를 짐작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관계전문가들의 관별이 있기를 고대한다.

그림 장벽중에 문짝을 처마에 다라맨 모습이 보인다. 普光明殿의 시설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점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거리를 제기하여 준다.

殿內에는 佛壇위에 놓인 龜形木製燭臺 한쌍과 거대한 佛壇前木獅子



普光明殿의 중급친장, 중도리 안쪽은 소란반자이고 밖은 널빤지 반자인데 반자들짜임 十字매듭에 蓮華를 그리고 그 花蕊에 銅製 半圓形 鐵物을 박아 꽃술이 돌아난듯이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普光明殿의丹青



普光明殿의 飛天像壁畫

가 눈길을 끈다.

普光明殿 西側으로 규모가 큰 講堂 一棟이 있어 현재는 寮舍로 쓰이고 있다. 平面構成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쓰임에 편리하도록 꾸며져 있다. 口字形에 工字가 덧드린듯한 이 구조물은 지금 그 상태가 매우 나쁘다. 이번 指定에서 一括로 포함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지정에서 제외 되었다. 普光明殿보다는 그 建築된 연대가 늦은듯한 감이 진다.

講堂의 東庭에 石塔一基가 있다. 파손이 심하고 제작이 다 없어서 원래의 제 모습은 지금 잃고 있다.

浮屠가 똑떨어진 자리에 있다. 모두 조선조의 작품이다.

境內에서는 無數한 瓦片和 磁器片들을 볼 수 있다. 高麗靑磁、粉靑、白磁器와 土器片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조의 瓦片들이 散在하여 있다 이런 磁器와 이런 기와가 쓰이던 시절에 이미 이 절은 이루어져 있었다

는 증거이다.

寺刹史料에 따르면 新羅 眞平王二六年(六〇三)에 瑞巖에 의하여 開闢 되고 고려 恭愍王 八年(一三五九)에 懶翁에 의하여 重脩되었다 하며 圍鳳寺라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肅宗元년에 威鳳山城을 쌓기 이전 부터



普光明殿西側의 講堂(現寮舍)

威鳳寺는 그 자리에 있었으며香火가 계속되었다. 壬辰亂때 여기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古老들의 증언처럼 威鳳寺는 옛부터의 가람을 지켜온다고 할 수 있고 普光明殿은 肅宗代 以前 建物、조선조를 前、中、末期로 나누다면 적어도 前期의 末葉에 해당하는 시대에 경영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註)

- ① 大東地志 全州 太祖大王御眞條 宣祖壬辰移安于井邑內藏山之隱寂庵 又以船路移安于牙山縣 又移安于江華府 又移安于寧邊妙香山之普賢寺 光海圭六年還安于 本殿 仁祖十四年以兵亂移安于茂朱之赤雲山城 後還安于 本殿
- ② 肅宗實錄 卷四 元年乙卯十一月丁未條 築全州威鳳山城
- ③ 同書 七年辛酉九月壬子條 全羅道觀察使 趙世煥狀言 本道威鳳山城 初因監司權大載狀請 而緩急難待 請廢棄 專力於赤雲山城 備局覆奏言 城旣完築 以爲邑民入保元地 未認不可 而論其天險 不啻赤裳 依前定計於赤裳 實合慎重 上從之
- ④ 同書 二十九年癸未七月壬申條 移屬威鳳山城於金堤郡 威鳳初屬礪山 道里險道 礪民不堪其苦 道臣以金堤距山城 最近請移屬之 廟堂覆啓許之
- ⑤ 完山誌 佛宇條 威鳳寺 在威鳳山城內府東四十里

(釜山市立博物館 學藝研究室長)